분야별 ▼

시사·다큐 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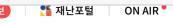
TV 뉴스

뉴스코너 ▼

지역뉴스

Evacuate downling and away from the life

Evacuate to locations such as already hurst around lawland a road as a cost behind rocks



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

0 <

KBS NEWS

'톱 5' 차준환, 한국 남자 피겨 새역사 썼다

입력 2022.02.10 (21:17) | 수정 2022.02.10 (21:28)

뉴스 9

가 ■





자메이카 봅슬레이 또 한 번 '쿨 러닝'…"우리는 더 성장할 것"

[앵커]

피겨 스케이팅에선 차준환이 차고 올랐습니다.

세계적인 스타들을 상대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고 성적, 5위를 기록했습니다.

신수빈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첫 점프 과제인, 4회전 토루프에서 나온 실수!

그러나 차준환은 의연했습니다.

이어진 4회전 살코를 깔끔하게 뛰었고,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 연결 점프까지 완벽하게 수행 했습니다.

후반부 배치된 점프들까지 실수 없이 마무리한 차준환!

이 시각 헤드라인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 보다 3.5%p↑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 …"항로 착오로 넘어와"





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.1%…19대보
- 2 이 "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" 윤 "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"
- 3 "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"···'제주들불축제'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20대 대통령선거…전국 14,464개 투표소 서 진행
- 6 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

트리플 플립 뒤 이어지는 코레오 시퀀스에서는 표정마저 빛났습니다.

전매특허 이너바우어는 프로그램에 우아함을 더했습니다.

경기를 마무리한 차준환은 첫 점프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, 프리에서 한국 최고 기록 인 182.87을 기록했습니다.

쇼트 합계 282.38점으로 5위.

한국 선수가 올림픽 피겨에서 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.

[차준환/피겨 국가대표 : "(올림픽) 순간순간을 좀 더 세세하게 느껴보려고 했고 또 순간순간을 좀 더 기억에 남도록 하려 했던 것 같아요."]

고등학생 시절 평창에서 1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은 4년 뒤에 10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.

만 20살 청년 차준환은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.

[차준환/피겨 국가대표 : "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"]

금메달은 무려 5개의 4회전 점프를 성공적으로 소화한 미국의 네이선 첸이 차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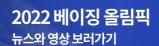
경쟁자 하뉴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점프 4회전 악셀에 도전했지만 넘어지면서 올림픽 3연패의 꿈도 사라졌습니다.

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당당히 겨룬 차준환!

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한국 남자 피겨의 새역사로 마무리했습니다.

베이징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.

촬영기자:김한빈/영상편집:박경상







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KBS가 손수 골랐습니다. 네이버에서도 보세요.





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



[영상] "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겠다" 독일 루지 여제의 작 심발언



베이징올림픽 미국서 흥행 참 패…4년 전 평창의 반 토막



황희 장관 "바흐 IOC 위원장 에 문화올림픽 제안…긍정 답 감동·희망의 여정 마무리 변 받아"



더보기

베이징의 별들이 돌아왔다!…

오늘의 HOT클릭!

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…선관위 "모두 유효표"



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"투표했어요~"



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

"경북·강원 산불 났는 데"…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
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···시장 평가는? 울진·삼척 산불 엿새째…전체 진화율 70% 중국 매체,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···"누가 이기든 한중관계··· '정확하고 재미있게'···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

[영상] "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"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…"국가부도 임박"

지역뉴스

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

뉴스 아카이브

KBS소개 ▲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

KBS N 채널 ▲

KBS WORLD 🔺

KBS /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 / 대표전화 02-781-1000 / 기사배열 책임자, 청소년보호책임자 :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/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/ 시청자상담실 02-781-1000 /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(2010년 6월 23일)

Copyright © KBS All Rights Reserved.